

# 전주시,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추진

### 연차별 총 1200억원 투자... 소블록별 관로 노후도·유수율 등 검토해 시행

전전주시가 추진해온 맑은물공급사업 1단계 사업이 유수율 향상과 예산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도 전면개방을 통한 맑은물공급사업을 지속 추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도 꾀하기로 했다.

22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6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맑은물공급사업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수도가 중간에 새지 않고 주민에게 도달하는 비율인 유수율이 62%에서 75.4%로 13.4%p나 상승했다. 또, 그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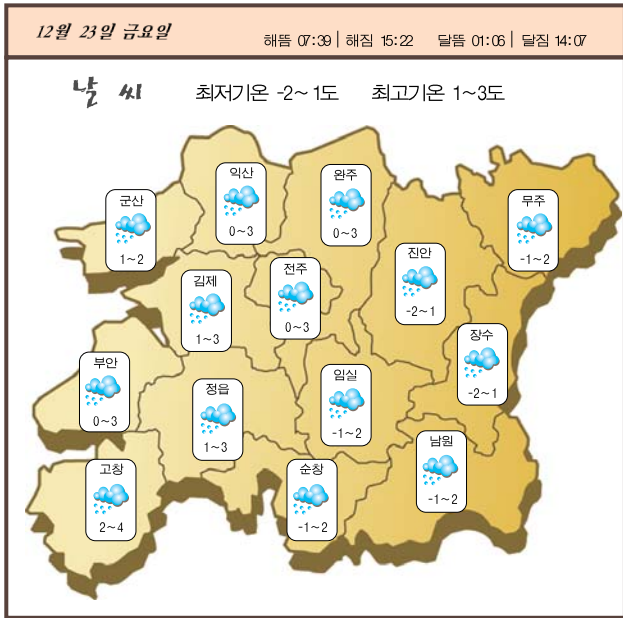
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맑은물공급사업 1단계 사업을 통해 전주시 급수구역 전체를 128개 블록으로 나눠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수도관의 노후가 심한 50개 블록에 대해서는 노후관 605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또 유희중인 배수지를 개량해 직·간접 급수방식에서 간접 배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블록별로 유량·수압 실시간 모니터링과 계속 감시, 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현대화된 상수도 관망 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노후관 교체 등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서,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양질

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은 물론, 간접배수에 의한 수역별 안정적인 용수 공급으로 수압 불균형이 해소됐다. 또, 압력과다에 따른 누수발생량도 대폭 감소했다. 현대화된 상수도 통합 전산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배수지별·블록별 물공급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 유수율 관리와 유량공급 패턴 분석으로 누수 발생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복구하는 등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 관리가 가능해졌다. 시는 맑은물공급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단계 사업 추진으로 고립된 78개 블록에 대해 연간 120억원 정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총

1200억원 규모를 투자,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단계 사업은 소블록별 관로의 노후도와 유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호범 전주시 급수과장은 "사업초기에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단수, 적수 발생 등으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을 유발했지만, 많은 노력 끝에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예산 절감 효과도 수도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등 상수도 행정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 경쟁력 갖춘 지역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육성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내년 1월 본격 운영 계획

전주시가 풍남문 미디어파사드 공연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지역 스마트미디어 콘텐츠를 육성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달 중 전북정보산업지원센터 내에 981㎡ 규모의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시설공사와 관련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7월 '2016 K-ICT 지역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진흥원은 전주시가 확보한 국비 10억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융합기반의 스마트미디어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에는 미디어파사드와 디지털그래피티, 사이니지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가 가능한 사이니지스튜디오, 360도 촬영이 가능한 크로마키스튜디오와 전문교육실, 컨설팅과 기업간 창업자간 협업네트워킹을 위한 오픈랩실, 입주기업 공간, 네트워킹실도 갖출 예정이다.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미디어파사드와 디지털사이니지 등 지역 내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지역 강소기업 및 영상기술분야(예비)창업자 등의 육성과 사업화·창업 지원 등 스마트미디어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



**전북도 체육상 시상식** 22일 전주 오펜리스에서 열린 2016 전북도 체육상 시상식에 김일재 행정부지사(가운데)가 체육대상 시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대된다. 이와 관련, 시와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는 22일 전주 리원호텔 백제홀에서 올해 추진한 사이니지 융합 콘텐츠 관련 사업보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2016 스마트 사이니지 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사이니지 서비스모델 개발방법 및 사례 △프로

젝션 맵핑의 최신동향 △감성을 기반으로 한 사이니지 기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컨퍼런스와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대회, 미디어아트 전시, 체험행사 등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스마트사이니지 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38개 아이디어가 선보였으며, 특별전시장에는 11월부터 5주간 진행

된 '3D 프로젝션 맵핑 전문교육'을 수료한 1기 수료생들이 직접 제작한 3D 프로젝션 맵핑 콘텐츠 작품도 전시됐다. 또, 스마트사이니지 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 수행된 '사이니지를 통한 인터랙티브형 미디어 그래픽터 서비스' 체험 행사도 진행됐다.

/김영재기자

#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7년도 1월 1일자로 4급 서기관 승진 4명, 5급 사무관 승진 16명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 승진 148명과 전보 345명, 신규임용 69명,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등 총 68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명단은 홈페이지(www.jmaeil.com) 참조>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공무원 승진자는 총 148명으로 각각 교육행정 4급 4명, 5급 15명, 6급 28명, 7급 38명, 8급 30명과 전산, 사서, 시설, 사무운영, 시설관리, 운전, 위생·조리, 기계운

영 등 33명이다. 지방서기관 승진은 박양상 사무관이 정책공보담당관실로, 소기현 사무관이 예산과로, 박성현 사무관이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으로, 김재호 사무관이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장으로 발령됐다. 이외에도 4급 지방서기관 7명이 자리를 옮겼다. 사무관 승진은 지난 10월 역량평가를 통하여 선발된 5급 16명이 임용되었고 총 27명의 사무관이 자리를 이동하였다.

/정해은기자

# 내년 농어촌 방과후학교 43억원 지원

도교육청은 내년 방과후 마을학교에 4억2천만원을 지원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관련 단체(기관)에 방과후 학교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22일 도교육청은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방과후 마을학교 △순회강사제 △도시 및 농어촌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자유수강권 운영 등을 중점추진사업으로 확정했다. 방과후 마을학교는 교육경험의 장소를 학교 밖으로 확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기관)와 함께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초 희망 단체(기관)를 공모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4억2천만원을 투자한다. 서면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우수 단체(기관)를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2회 이상 프로그램별 학생 20명 가량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질 높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농어촌지역 학교에 배치하기 위해 순회강사제도 운영한다.

/정해은기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4-30 (7일간)